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미·중 관세 인하 합의로 기술주 급등, 증시 반등

- 주요 지수 모두 상승: S&P500 +3.3%, 나스닥 +4.4% 상승
- 미·중 관세 인하 합의, 기술주 및 반도체주 급등
- 연준 정책 스탠스는 "관망" 유지, 이자율 동결

Summary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소식에 힘입어 급등 마감함.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81% 오른 42,410.1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4.35% 상승한 18,708.34에 각각 장을 마감. S&P 500 지수도 3.26% 상승한 5,844.19에 마감하며 올해 손실폭 거의 만회함. 미·중 양국이 90일간 상호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이 주가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 특히, 애플과 아마존,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들이 관세 인하로 인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시장 분위기를 주도함. 아마존은 8.07% 상승이며, 애플도 6.31% 오름. 반도체주 역시 일제히 급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폭등함. 주요 경제 지표로는 금리 동결이 있음.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이자율을 동결했으며, 연준은 경제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볼 계획임. 이에 따라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했으며, 국제유가도 올랐음. 전반적으로 시장은 미·중 무역관계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이번 주말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전화 통화가 예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무역 개선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다우 +2.81%, 나스닥 +4.35%, S&P500 +3.26%, 러셀2000 +3.42%)

특징종목

NRG 에너지 (+26%)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초과하면서 거대한 천연가스 발전소 인수 소식과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줌. 이는 회사가 에너지 생산에 대한 전략적 확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해석된 결과로 분석됨. 스탠리 블랙 & 데커 (+15.7%)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정 소식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으로 주목받으며, 추가 배당금 지급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전달함. 지브라 테크놀로지스 (+12.5%)는 자동화 솔루션 분야에서 최신 기술 발표 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 기술의 진보가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향후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됨. 트레이드 데스크 (+11.8%)는 디지털 광고 부문의 강한 성장세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실적으로 주목받음. 마스코 (+11.4%)는 배당금 발표와 긍정적인 시장 분석에 힘입어 주가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회사의 장기적 잠재력을 높게 보는 것으로 해석됨. 이와 비슷하게 올드 도미니언 프레이트 라인 (+11.2%)은 무역 협정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트럭 운송업계의 기대감을 반영한 상승세를 보임.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 (+11.2%)는 전략적 투자와 긍정적 시장 평가가 주가를 끌어올렸으며, 퍼스트 솔라 (+11.0%)는 무역 관세 완화 및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상승세를 기록

함. 이러한 종목들은 각각 외부 요인 및 내부 전략이 조화롭게 작용하여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냄.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절감 협상 소식에 따라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47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시장의 리스크 선호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투자자들은 조만간 예정된 소비자 물가 지수(CPI)와 생산자 물가 지수(PPI)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동향에 주목할 것임. 주요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대부분 상승했으며, 특히 독일 2.66, 영국 4.65로 상승세를 보임.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지수(DXY)가 101.79로 상승, 1.19%의 일일 상승률을 기록함. 이는 미중 관세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며 달러의 매력에 다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유로/달러는 1.11로 미 증시 호재의 영향을 받음.

상품 시장에서는 WTI 원유 가격이 하루 동안 1.54% 상승하여 배럴당 61.96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주유소 및 전반적인 에너지 시장의 긍정적인 동향을 반영함. Brent 원유도 1.61% 상승하여 배럴당 64.94 달러를 기록하며 비슷한 흐름을 보임. 반면, 금 가격은 2.64% 하락하여 3236.34 달러의 온스당 가격을 기록함. 이는 시장의 리스크 선호 증가와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임.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